

섬 관광에 대한 국내 학술 연구(2001 - 2025)의 주제 탐색: 토픽
모델링과 내용분석을 통한 연구 동향과 정책적 함의*
Mapping Topical Themes of Korean Island Tourism
Research(2001-2025): A Topic Modeling and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nd Policy Relevance

이 유 안**·윤 대 홍***

Lee, Yu-an · Yun, Dae-hong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island tourism research in South Korea from 2001 to 2025 using topic modeling and content analysis. Analysis of publication trends, journal distribution, and TF-IDF key terms indicates that the field has progressively expanded, with *The Journal of Korean Island* serving as a key publication venue for island tourism scholarship. Topic modeling identifies eight latent thematic areas: mobility-based satisfaction (Topic 1); place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policy linkages (Topic 2); tourist evaluation and behavioral factors (Topic 3); ecology- and leisure-oriented research (Topic 4); festivals,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resident attitudes (Topic 5); healing resources and policy- and branding-oriented approaches (Topic 6); spatial structure, infrastructure, and inter-regional exchange networks (Topic 7); and destination choice factors shaped by perceived risks, constraints, motivations, and local context (Topic 8).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island tourism research has evolved into a multidisciplinary field characterized by multiple thematic streams. High-gamma documents within each topic were examined to clarify underlying thematic structures and research trajector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offers implications for future academic research, as well as insights relevant to island tourism policy and industry development in Korea.

Key Words(핵심용어) : Island tourism(섬 관광), Topic modeling(토픽 모델링), Text mining(텍스트 마이닝), Research trends(연구 동향)

* 이 논문은 2025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대학특성화 분야 논문 게재료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게재된 논문임.

** 신라대학교 미래융합학과 겸임교수 :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Future Convergence, Silla University)

*** 부산가톨릭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조교수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Distribution Market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Corresponding Author : Dae-hong Yun, dhyun@cup.ac.kr, (Tel) +82-51-510-0885, (Fax) +82-51-510-0889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과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섬 관광 연구의 전반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발행 추이, 학술지 분포, TF-IDF 기반 핵심 키워드 분석 결과, 섬 관광 연구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한국도서연구』가 국내 섬 관광 연구의 주요 게재 학술지로 기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총 여덟 개의 잠재 주제 주제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이동성 기반 만족(토픽 1), 장소 특성과 지역 정책 연계(토픽 2), 관광객 평가와 행동 요인(토픽 3), 생태·여가 중심 연구(토픽 4), 축제·인프라·시설 및 주민 인식(토픽 5), 치유 자원과 정책·브랜딩 지향 접근(토픽 6), 공간 구조·인프라 및 지역 간 교류 네트워크(토픽 7), 그리고 인식된 위험, 제약, 동기, 지역 맥락에 의해 형성되는 관광지 선택 요인(토픽 8)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국내 섬 관광 연구는 다수의 주제 흐름이 병존하는 다학제적 연구 영역으로 발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토픽별 감마 값이 높은 문헌을 중심으로 심층 검토를 수행하여 주제 내 의미 구조와 연구 전개 경로를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섬 관광 분야의 학술연구 방향과 더불어 국내 섬 관광 정책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I. 서 론

섬 관광은 관광 자원이자 여가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요 지자체의 입도객 증가와 여객선 이용 확대 및 섬 관광 정책 추진은 최근 섬 관광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향자, 2020; 이웅규, 2023). 이러한 변화에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연·회복 지향적 관광 수요가 확대되면서 섬의 자연·생태 기반 치유 환경이 새로운 관광 동기로 부상하였다(이진의, 2025). 둘째, 연륙교 건설과 여객선 운항 확대 등 교통 인프라 개선과 함께 SNS·유튜브 등 디지털 콘텐츠 확산이 섬 관광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셋째, K-관광섬 육성사업과 섬 특성화 사업 등 정책적 지원 확대를 통해 섬은 국가 차원의 관광 자원으로 재조명되고 있다(김향자, 2020).

섬 관광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 섬 관광 연구 역시 양적·질적으로 확장되며 주요 연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초기 연구가 관광매력, 경쟁력, 지역사회 참여 등 기본적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인구소멸 대응, 관계 인구 유입, 워케이션, 빅데이터 기반 분석 등 사회적 변화가 반영되며 연구 주제가 세분화되고 있다(허중욱·최영순, 2023).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동호(2022)는 2021년까지의 섬 연구를 네트워크 및 계량서지 분석으로 검토하여, 섬 연구가 지리·행정·문화·역사·사회경제 등 융복합 영역으로 확장되었음을 확인하고, 생태·문화·레저 기반 섬 관광 연구가 주요 연구 흐름 중 하나임을 제시하였다.

섬 관광 연구의 축적과 정책적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섬 관광을 독립적 분석 단위로 설정하여 지식구조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 섬 연구 동향 분석은 연구 지형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데에는 기여했으나, 섬 관광이 지니는 고유한 주제 특성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내 섬 관광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지식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최근 이진희(2025)의 CONCOR 기반 네트워크 분석은 이러한 연구 공백을 일부 보완하였으나, 단어 간 공동출현과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균집을 도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개별 문헌에 내재된 잠재적 주제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섬 관광 연구를 대상으로, 문헌 코퍼스에 분포한 잠재적 의미 패턴을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LDA 기반 토픽 모델링, TF-IDF, 내용분석을 종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연구 동향을 규명하고 핵심 주제 범주를 보다 정교하게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축적된 국내 섬 관광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 전개 양상과 주제 구조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연도별 발행 추이와 학술지 분포를 분석하고, 둘째, TF-IDF와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핵심 단어와 주제 범주 및 그 비중을 도출한다. 셋째, 토픽별 감마 값 상위 논문 분석을 통해 잠재적 주제 구조와 연구 흐름을 확인한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섬 관광 연구의 발전 방향과 정책·산업적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학술적 배경

1. 섬의 개념·관광적 속성

「섬 발전 촉진법」은 섬을 ‘만조 시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정의하며(섬 발전 촉진법, 2025), 이러한 지리적 고립성은 해양 경관, 자연생태계, 생활문화 등 섬 특유의 관광 요소로 전환되어 일상과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섬 관광은 환해성·고립성과 같은 섬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섬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 활동이다. 최근에는 섬의 가치가 정주 공간을 넘어 문화·생태·관광을 포괄하는 국토적·사회문화적·경제적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아울러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관광객을 포함한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국가 정책 기조와 맞물리며, 섬 관광은 전략적 육성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교통 불편으로 인해 한계 지역으로 인식되었던 섬은, 최근 고유한 정체성과 주민 삶이 축적된 장소성, 휴식과 해방감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조명되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섬 관광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김향자, 2020).

2. 섬 관광 정책

섬 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중앙부처는 각자의 정책 영역에 따라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김향자, 2020). 행정안전부는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여건 향상을 중심으로 섬 지역의 기반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과 법·제도 정비를 통해 섬의 해양 활용도를 제고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 자원의 발굴과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의 관광 매력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섬 관광 정책에 대한 이해는 국내 섬 관광 연구를 해석하는 데 배경적 맥락을 제공한다(표 1 참조).

1) 행정안전부: 섬 정주 환경 개선과 관광 기반 확충

섬 관광의 관점에서 행정안전부(MOIS) 정책은 유인섬의 정주 환경 개선과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통해 371개 섬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행정안전부는 섬을 국가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해양생태관광, 트레킹 코스 조성, 폐교·폐가 리모델링 등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여객선 준공영제와 요금 할인 등 접근성 개선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섬 관광의 물리적 제약을 완화하고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초기 섬 정책이 생활기반 확충 중심의 개발 단계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정주·관광·문화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고 있다. 제1차 계획이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면, 제2~4차 계획은 주민참여형 지역자원 활용을 중심으로 한 상향식 체계로 발전하였으며, 제4차 계획은 '살기 좋은 섬'을 목표로 정주·관광·경제 기반을 강화하였다(행정안전부, 2019). 아울러 범부처 도서종합발전계획, 섬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섬진흥원의 특성화 사업 추진은 섬 관광 경쟁력과 지역발전 기반을 동시에 고도화하는 정책적 토대로 기능하고 있다.

2)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300 사업과 해양레저·마리나 산업 육성 법제화

해양수산부(MOF)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포함한 섬 어촌 지원과 함께, 해양레저·치유·생태 기반 해양관광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마리나 산업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이러한 정책 흐름은 2024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고도화되었으며,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자원 보호, 실태조사·통계 구축, 관광상품 개발 지원 등 해양관광 전반을 포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해양레저관광진흥법, 2025). 이를 통해 해양레저·마리나 산업, 해수욕장, 수상·수중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으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표 1〉 섬 발전과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처별 정책 방향

부처	주요 정책(계획·사업)	정책 중점 방향	대표 사업 및 실행 과제
행정 안전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추진 - 섬 특성화 사업 - 찾아가고 싶은 섬 (섬진홍원) - 범부처 도서종합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의 정주환경·생활 기반 개선, 지역 지속가능성 강화 - 교통·접근성 개선 (여객선 준공영제, 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종합개발계획(1~4차) - 섬 관광 빅데이터 분석 - 생태 관광·트레킹 코스 - 폐교·폐가 활용 프로젝트
해양 수산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저관광진흥법(2024) 제정 - 해양레저·마리나 인프라 확충 - 종합계획, 실태조사·통계체계 - 해양치유·생태관광 정책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저·마리나 산업 - 해양관광 법·제도 기반 구축(해양레저·수상레저·해양치유·해양생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항만 조성(2014~)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및 레저관광 종합계획 - 어촌 뉴딜 300 사업
문화 체육 관광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관광섬 육성사업(2023~) - 섬 브랜드화·특화 개발 - 문화·생태 관광자원화 - K-컬처 결합 관광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K-컬처 브랜드 강화 - 체류형·스토리 기반 관광 육성, 문화·체험관광 확대 - 인프라(항만·트레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관광섬(백령도 등 4년·약100억) - 해안 트레일·문화허브 - 공항·항만·순환여객선 연계 프로젝트

3) 문화체육관광부: 섬의 문화·관광 자원화와 K-관광섬 육성

문화체육관광부(MCST) 섬 관광 정책은 섬의 문화·생태 자원을 K-컬처와 결합하여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섬을 체류형·스토리 기반 관광지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2026년 ‘K-관광섬’ 육성사업을 통해 저밀도 청정지역인 섬을 글로벌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으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4년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방축도,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 거문도 등 5개 지역이 K-관광섬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섬의 자연·생태·문화 자원에 K-컬처를 융합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스토리텔링 기반 관광상품 개발과 체류형 관광공간 조성을 통해 섬을 국제적 관광지로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3. 섬 관광 선행연구

섬 관광 연구의 시기별 흐름을 주요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섬의 고립성, 생태적 민감성, 사회·경제적 제약을 고려한 관광 모델 정립과 함께 매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가 제시되었다. 송재호·이성은(2005)은 내륙 관광지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접근성 제약, 자원 조건, 계절성 등 섬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통해 지속가능성, 생태 보전, 방문 경험 향상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후 섬 관광 매력성 요소 규명(오상훈·고계성, 2006), 경관·생태·문화 기반 유인 요인 분석(이진의·강신겸, 2013), 섬 경쟁력 지표 개발(서용건 외, 2010) 등이 축적되며 섬 관광지 분석 틀이 확장되었다(표 2 참조).

2010년대 이후에는 섬 관광 연구가 정책·커뮤니티 중심의 실천적 접근으로 전환되며, 주민 참여

기반 지속가능 관광 모델(강신겸, 2012)과 개발 척도 연구(송재호·김향자, 2018)가 이를 대표한다. 이는 자원 중심 논의에서 지역사회·정책·수요·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나아가 2020년대에는 인구소멸, 관계인구, 위케이션, 빅데이터 등 사회적 이슈와 기술 변화에 대응한 연구가 강화되며, 인구감소 대응 대체 관광객 산정(허중욱·최영순, 2023)과 온라인 리뷰 기반 섬 브랜드 전략 분석(노광민·박성현, 2022) 등 데이터 기반 연구로의 고도화가 확인된다.

〈표 2〉 섬 관광 연구의 주요 흐름

시기	연구 흐름	연구자·연도	핵심 내용
2000 ~ 2009	섬 관광 이론·모델	송재호·이성은(2005)	섬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보존, 방문객 경험, 정부-민간 협력
		오상훈·고계성(2006)	섬 관광지의 매력성 요소 규명, 관광 경쟁력 속성 분석
	매력 유인	이진의·강신겸(2013)	섬의 경관·생태·문화 특성을 관광 선택의 유인 요인 설명
서용건 외(2010)		섬 관광 경쟁력 지표 개발, 정책·전략 수립의 기초 제시	
2010 ~ 2020	정책·여건	강신겸(2012)	커뮤니티 환원, 지속가능한 섬 거버넌스 관광 모델
		김태영(2012)	제도 정비, 인프라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섬 관광 정책
	지표 연구	심진범·김지선(2017)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건 진단 지표 개발, 정책·사업
송재호·김향자(2018)		섬 관광 개발의 측정척도 개발 (제주도 4개 섬)	
2020 ~ 2025	인구소멸· 빅데이터	허중욱·최영순(2023)	인구감소 대응과 1인당 경제 소비 효과 및 적정 관광객 수
		이태걸·박성현(2023)	관계인구·위케이션·재방문·지역 기여형 수요 창출 방향
	주제변화	노광민·박성현(2022)	'가고 싶은 섬' 소셜 미디어 섬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주하정 외(2024)		온라인 리뷰의 섬 관광 경험·만족 요인 분석	

4. 텍스트 마이닝 선행연구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처리하여 의미 구조를 도출하는 기법으로, 시각화와 객관성, 대량 정보 처리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며 비정형 텍스트의 증가와 지식관리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기존 내용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는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은 네트워크 분석, 군집화, 감성 분석, 토픽 모델링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텍스트를 구조화하여 주요 개념과 연계성, 잠재적 의미 패턴을 도출하는 데 활용된다(정소연, 2022). 이 중 토픽 모델링은 문서 집합에 내재한 잠재적 주제 구조를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학술연구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진의(2025)는 2024년까지의 섬 관광 연구를 대상으로 CONCOR 분석을 적용하여, 지속가능 섬 관광, 관광지 경쟁력, 섬 관광 정책, 역사·문화 콘텐츠, 자원 및 가치 향상, 세계유산, 지질·자연 관찰 등 일곱 개의 의미 영역을 도출하였다. CONCOR 분석은 단어 간 공동출현에 기반한 상관관계를 통해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반면, LDA 토픽 모델링은 문서 단위의 단어 분포를 확률적 생성 모형으로 추정함으로써 텍스트에 내재된 잠재 주제와 그 분포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정소연, 2022). 이러한 방법론적 차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섬 관광 문헌의 주제 구조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였다.

5. 토픽 모델링(LDA)과 CONCOR 분석의 차이

토픽 모델링(LDA)과 CONCOR 분석은 모두 데이터의 구조적 특성 파악을 위해 활용되지만, 분석 초점과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다(표 3 참조). CONCOR는 단어 간 공동출현 행렬을 기반으로 상관분석을 반복 수행하여 값이 수렴하도록 한 뒤, 구조적 유사성이 높은 단어들을 네트워크 군집(block)으로 묶는 방법이다(Breiger et al., 1975). 이때 도출된 군집은 네트워크 내에서 구조적 등가성(structural equivalence)을 지닌 단어들의 집합으로 해석된다. 즉, CONCOR는 단어들끼리 다른 단어와 유사한 관계 패턴을 공유하는 방식과 군집 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나, 단어 관계 구조에 초점을 두는 특성상 텍스트에 내재된 잠재 의미 구조(latent semantic structure)를 설명에 한계를 가진다.

첫째, CONCOR는 단어의 동시 등장 빈도와 상관관계에 의존하여 맥락적 의미 포착에 한계가 있으며, 동일 문헌에서 함께 등장하더라도 동일 주제를 의미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의미적으로 다른 단어가 동일 블록에 포함되거나 동일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가 분리될 수 있다. 둘째, 단어 단위 분석에 초점을 두어 개별 문헌의 주제 구성과 비중 등 문헌 수준의 주제 구조를 설명하기 어렵고, 코퍼스 전체의 주제 수, 주제 간 관계, 시기별 분석에도 제약이 있다. 셋째, 도출된 블록 구조가 분석자 설정에 의존하며, 확률적 타당성과 수학적 최적성을 평가할 기준이 제한적이다. 반면, LDA는 확률 생성 모델 기반 추론을 통해 모델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3〉 CONCOR 분석과 LDA 분석 차이

구분	CONCOR	LDA(잠재 디리클레 할당)
분석 관점	단어-단어 간 상관관계, 공동출현 네트워크, 네트워크 기반(단어 간 관계 구조 분석) 표면적·관계적 패턴 분석 기법	문서 전체의 단어 분포에 대한 확률 기반(문헌 내 잠재적 주제 분포 추정) 잠재적 의미 구조 분석 기법
기본 단위	상관관계(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반복 계산 → 군집 구조(그룹)도출	문헌-단어 간 확률 분포 확률 모형(Dirichlet + multinomial) → 잠재 주제(topic) 확률 분포추정
도출 결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 단어 블록 또는 군집	문헌 전체에 내재된 잠재 주제(topic) 구조 파악과 문헌별 주제 비중 비교 가능
원리	상관행렬 반복 계산 → 구조적 등가성에 기반한 군집화, 네트워크 기반 유사성 집단(cluster)	베이지안 추론 기반의 확률적 생성 모델 전체 코퍼스의 의미 패턴 중심
질문	단어들이 어떤 관계 구조를 공유하는가? 네트워크 구조상 중심 단어는 무엇인가?	문헌 집합이 어떤 주제들로 구성되는가?
장점	- 단어 간 네트워크 구조와 군집 간 경계와 네트워크 시각화 용이	- 문헌 코퍼스의 잠재 주제 파악 가능 - 문헌별 주제 비중과 의미 기반 군집 도출
한계	- 상관관계 기반이므로 의미적 연결보다 동시 등장 패턴에 좌우됨, 군집 수가 임의적	- 네트워크 구조는 파악 불가 - 결과는 확률적이므로 해석의 주관성 개입

LDA는 문서 집합에 내재된 잠재 주제를 확률적 생성 모형으로 추정하여, 각 문서가 어떤 주제들로 구성되는지를 확률 분포 형태로 제시하는 분석 방법으로서 문헌 전체의 주제 구조와 잠재적 패턴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Blei et al., 2003). 또한 모델 적합성 평가를 통해 주제 수 선택과 분석 결과의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주제를 추출·비교·요약하는 데 효과적이다. 반면, CONCOR는 단어 간 관계망 기반 의미 영역 파악에는 강점을 지니지만, 문헌 단위의 잠재 주제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 동향 분석에서는 잠재적 의미 패턴을 확률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의 활용이 요구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국내 섬 관광 연구의 학술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수집한 관련 학술논문 초록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2001~2025년 동안 국내 섬 관광 연구의 연도별 발행 추이와 학술지 분포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TF-IDF 분석과 토픽 모델링(LDA)을 통해 도출된 핵심 단어와 주요 주제 범주, 그리고 각 주제의 비중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토픽 모델링에서 도출된 토픽별 감마(Gamma) 값 상위 논문 분석을 통해 각 토픽의 잠재적 주제 구조와 연구 흐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도출된 토픽별 주제는 향후 섬 관광 연구의 학술적 발전과 정책·실무적 논의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2.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5년 11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국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섬 관광'과 '도서 관광'을 검색어로 수행하였으며, 두 검색어에 동시에 해당하는 논문을 제외한 229편의 논문 초록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분석은 Python 3.8.11 환경에서 진행되었고, 데이터 정제·전처리, 코퍼스 구축 및 벡터화, 토픽 모델링, 시각화의 절차로 구성되었다. 텍스트 전처리 단계에서는 불용어 삭제, 표준화를 수행하였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명사형 토큰을 추출하고, 특수문자, 조사·접속사를 제거하여 텍스트 노이즈를 최소화하였다. 전처리 결과의 검수와 관리는 openpyxl 기반 Excel 저장 방식을 활용하였다.

코퍼스 구축 및 벡터화 단계에서는 Gensim을 이용해 단어 사전과 Bag-of-Words(BOW) 코퍼스를 생성하고, 문서-특성 행렬을 구성하였다. 문서빈도 기준을 적용해 희귀어와 과빈출어를 제거하였으며, 단어빈도(TF)와 TF-IDF 분석을 통해 핵심 단어의 분포와 상대적 중요도를 검토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Gensim 기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Perplexity와 Coherence 지표를 기준으로 토픽 수를 3~9개 범위에서 반복 실험하여 최적값을 도출하였다. 또한 모델 학습을 반복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안정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고, 최종 토픽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데이터 정제 및 토픽 모델링 분석

본 연구는 텍스트 분석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Python 기반 전처리와 시소러스(thesaurus) 표준화 절차를 수행하였다. 우선 수집 단계에서 사용된 검색어(섬, 도서, 관광, 여행)와 의미 판별력이 낮은 학술 일반어(연구, 분석, 조사, 시사점, 설문, 이론, 실증, 효과 등), 그리고 섬 관리·운영 맥락에서 빈번히 사용되나 분석적 기여도가 낮은 용어(과제, 추진, 관리, 강화, 구축 등)를 불용어로 제거하였다.

또한 단일 문자, 조사 형태의 노이즈 단어, 감정 판단어, 시간·배경을 나타내는 일반적 흐름 단어 역시 분석적 유용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띄어쓰기, 철자, 표기 방식의 차이로 중복 생성된 표현과 의미가 동일한 유의어를 대표어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표준화 절차는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하고, 텍스트 간 의미적 일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토픽 모델링 결과의 해석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IV. 분석 결과

1. 시기별 · 저널별 현황

최종 분석 대상인 229편의 논문에 대한 저널별 게재 현황을 보면, 한국도서연구가 핵심 학술지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4 참조). 분야별로는 섬·해양 분야(한국도서연구, 해양관광학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해양비즈니스, 도서문화), 관광 분야(관광학연구 등), 지리·경관·환경 분야(경관과 지리, 국토지리학회지), 개발·산업 분야(국토계획지역개발연구, 지역산업연구), 문화·융합 콘텐츠 분야(국제문화연구, 융합관광콘텐츠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등에서 관련 연구가 분포한다. 이는 섬 관광 연구가 다학제적 연구 분야로 축적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표 4〉 섬/도서 관광 학술논문의 저널별 출판 분포(2001-2025)

순위	저널명	누적 수	순위	저널명	누적 수
1	한국도서연구	56	7	관광연구논총, 관광경영연구 경관과 지리, 관광진흥연구 융합관광콘텐츠연구	4
2~3	관광학연구, 해양관광학연구	14	~		
4	관광레저연구	10	11		
5~6	관광연구저널, 도서문화	7			

〈표 5〉 섬/도서 관광 학술논문 연도별 발행 건수 (2001-2025)

연도	편수	연도	편수	연도	편수	연도	편수	연도	편수
2001	2편	2006	5편	2011	7편	2016	14편	2021	14편
2002	1편	2007	3편	2012	12편	2017	10편	2022	14편
2003	1편	2008	5편	2013	7편	2018	12편	2023	16편
2004	1편	2009	4편	2014	14편	2019	22편	2024	14편
2005	6편	2010	7편	2015	7편	2020	15편	2025	16편
2001~05	11편	2006~10	24편	2011~15	47편	2016~20	73편	2021~25	74편

또한 시기별 발행 건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1~2005년에는 비교적 적었으나, 2006년 이후 점차 연구가 늘어 꾸준히 발행되었고 2012년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다. 2016년 이후 매년 10편 이상이 발행되었고 2019년 22편으로 증가하였다. 2020~2025년에도 약 15편 내외로 발행되어 학술적 관심이 꾸준히 확대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5 참조).

2. 단어빈도 역문서 빈도 분석

데이터 분석은 Python 3.8.11 환경에서 수행되었으며, 섬 관광과 도서 관광을 검색어로 수집한 229편의 논문 초록을 전처리한 결과 3,106개의 유효 단어가 추출되었다. 전처리된 단어 집합을 대상으로 단어빈도(TF)와 TF-IDF를 산출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빈도와 TF-IDF 상위 30개 단어를 비교한 결과, 약 75%가 동일한 단어로 구성되었으며(예: 해양, 개발, 자원, 정책, 주민, 문화, 자연, 환경, 가치, 관광객, 관광지, 활성화, 전략, 속성, 콘텐츠 등), 이는 국내 섬 관광 연구가 관광 수요(방문·만족·행동), 관광 공급(자원·정책·개발·콘텐츠), 해양·환경 중심의 생태성, 지역사회 요인(주민·문화)을 주요 축으로 형성해 왔음을 시사한다. 한편, TF-IDF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단어들은 단순 빈도보다 주제 구분에 기여하는 정보량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관광 선택의 심리 요인(속성·가치·만족·행동), 그리고 ‘경관’과 ‘사업’은 정책 및 개발사업 중심의 실천적 연구 맥락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표 6 참조).

〈표 6〉 상위 빈출 단어 및 TF-IDF 분석 결과

순위	빈출 단어	빈도(회)	비율(%)	TF-IDF 단어	중요도	비율(%)
1	관광객	438	2.461	관광객	17.495	2.208
2	개발	383	2.152	개발	17.175	2.167
3	해양	295	1.658	해양	14.982	1.891
4	관광지	265	1.489	관광지	14.656	1.850
5	자원	260	1.461	자원	13.922	1.757
6	정책	245	1.377	정책	12.338	1.557
7	가치	198	1.113	주민	9.424	1.189
8	주민	168	0.944	문화	9.202	1.161
9	문화	168	0.944	속성	9.026	1.139
10	방문	158	0.888	방문	8.950	1.129
11	활성화	145	0.815	가치	8.900	1.123
12	환경	139	0.781	만족도	8.456	1.067
13	전략	128	0.719	전략	8.049	1.016
14	자연	110	0.618	환경	7.938	1.002
15	속성	107	0.601	활성화	7.548	0.952
16	산업	107	0.601	산업	7.233	0.913
17	만족도	105	0.590	자연	7.138	0.901
18	발전	104	0.584	체험	7.022	0.886
19	경관	98	0.551	행동	6.851	0.865
20	다양	98	0.551	사업	6.819	0.861
21	체험	96	0.539	활동	6.578	0.830
22	이미지	96	0.539	생태	6.407	0.808
23	콘텐츠	93	0.523	발전	6.375	0.804
24	지각	93	0.523	매력	6.363	0.803
25	시설	93	0.523	제주	6.235	0.787
26	정부	92	0.517	콘텐츠	6.226	0.786
27	활동	92	0.517	경관	6.215	0.784
28	사업	90	0.506	지각	5.967	0.753
29	생태	87	0.489	동기	5.925	0.748
30	서비스	84	0.472	제주도	5.910	0.746

3.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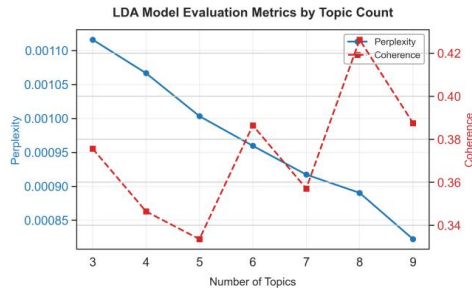
LDA 토픽 모델링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Perplexity와 Coherence 지수를 함께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토픽 수가 증가할수록 Perplexity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Coherence 값은 8개 토픽 모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0.426). 이에 본 연구는 통계적 적합도와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개 토픽 모델을 최적의 토픽 수로 선정하였다(표 7, 그림 1 참조). Perplexity는 문서 집합에 대한 모델의 예측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낮을수록 통계적 적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oherence는 토픽 내 단어 간 의미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토픽의 의미적 결속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 내 상위 단어쌍의 공출현 확률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C_V coherence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정규화된 점별 상호정보량(NPMI)을 적용해 단어쌍의 동시 등장 확률과 개별 등장 확률의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토픽의 의미적 일관성을 평가한다. NPMI 값이 높을수록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의미적 결속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Coherence & Perplexity

토픽 수	Perplexity	Coherence	토픽 수	Perplexity	Coherence
4	0.001066564	0.346468875	7	0.000917152	0.357069903
5	0.001003230	0.333570934	8	0.000890226	0.426288891
6	0.000959531	0.386437448	9	0.000822047	0.387507496

분석 결과, 국내 섬 관광 연구는 <표 8>과 같이 총 8개 토픽으로 도출되었으며, 각 토픽별 감마(Gamma) 값 상위 5편의 논문을 <표 9>에 제시하여 주제 해석의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는 토픽별 감마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서를 중심으로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각 토픽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주제 맥락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LDA 분석에서 문서별 감마(γ) 값은 개별 문서가 각 토픽에 속할 상대적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로, 특정 토픽에 대한 감마 값이 높을수록 해당 문서가 그 토픽을 대표할 가능성이 크다. LDA 모형에서 문서의 토픽 분포는 Dirichlet 분포로 근사되며 감마 파라미터를 통해 추정되고(Blei, Ng, & Jordan, 2003), 정규화한 감마 값을 기준으로 토픽별 대표 문서를 선정하였다(Blei, 2012).



<Fig. 1> Coherence & Perplexity of LDA Topic Modeling
 <그림 1> LDA 토픽모델의 Coherence 및 Perplexity 분석 결과

상위 주제어와 각 토픽의 논문 제목·초록·키워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픽은 이동·만족(토픽 1), 장소적 특성(토픽 2), 품질·가격(토픽 3), 생태·레저(토픽 4), 축제·시설(토픽 5), 치유·해양(토픽 6), 인프라·교통(토픽 7), 위험·계약(토픽 8)으로 명명되었다. 토픽 비중은 토픽 8(19.65%)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토픽 6(15.28%), 토픽 7(14.85%), 토픽 5(10.48%), 토픽 3(10.04%), 토픽

픽 4(9.17%), 토픽 2(7.86%)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부분적 균형 분포를 보였다.

〈표 8〉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Topic: 주제명 (건수·%)	Term (Weight)
Topic 1: 이동·만족 (29, 12.66%)	만족(0.026), 인천(0.024), 터미널(0.016), 세계(0.016), 유산(0.015), 여객(0.014), 남이섬(0.013), 지방(0.012), 안내(0.010), 연안(0.010)
Topic 2: 섬 장소성·이슈 (18, 7.86%)	아시아(0.023), 중앙정부(0.020), 보길도(0.016), 장소(0.014), 만족(0.013), 국가(0.012), 바다(0.012), 소멸(0.010), 독도(0.010), 운임(0.010)
Topic 3: 품질·가격 (23, 10.04%)	품질(0.057), 지표(0.045), 지각(0.041), 가격(0.036), 커피(0.028), 지식(0.016), 지질(0.015), 음료(0.013), 부문(0.013), 동기(0.012)
Topic 4: 생태·레저 (21, 9.17%)	울릉도(0.029), 레저스포츠(0.016), 지식(0.015), 다양성(0.015), 제약(0.014), 생물(0.014), 추세(0.010), 일본(0.008), 학문(0.008), 국민(0.008)
Topic 5: 축제·시설 (24, 10.48%)	축제(0.041), 태도(0.019), 골프장(0.017), 생활(0.016), 숙박(0.013), 인지도(0.013), 시설물(0.013), 인문학(0.012), 시각(0.011), 매체(0.011)
Topic 6: 치유·해양 (35, 15.28%)	치유(0.013), 국가(0.011), 육지(0.010), 바다(0.009), 숙박(0.009), 국토(0.009), 브랜드(0.008), 역대(0.007), 패키지(0.007), 유치(0.007)
Topic 7: 인프라·교류 (34, 14.85%)	도시(0.016), 회복(0.015), 교류(0.012), 시스템(0.012), 인프라(0.011), 입지(0.010), 네트워크(0.010), 창출(0.009), 모델(0.009), 제도(0.009)
Topic 8: 위험·계약 (45, 19.65%)	위험(0.037), 동기(0.034), 지각(0.031), 제약(0.016), 태도(0.014), 집단(0.012), 인구(0.012), 어촌(0.008), 수산물(0.007), 무인도(0.007)

토픽 1의 경우, ‘인천’, ‘터미널’, ‘여객’, ‘연안’, ‘안내’ 등이 구성하는 섬 방문을 위한 물리적 이동 환경, 교통 접근성 요소는 방문자 평가와 연계됨을 보여준다. 연안 여객터미널 효율성 분석(이충우 외, 2020)과 섬 접근성·만족·재방문 의도 연구(한상겸, 2015)는 이동 편의성, 여객 서비스가 관광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한다.

토픽 2는 섬의 장소성과 해양 자원 활용(보길도, 독도, 장소, 바다)과 국가·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이슈(국가, 중앙정부, 소멸, 운임, 지원)가 결합된 영역이다. 보길도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연구(한형호, 2012)와 돌섬 해양자원 기반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고계성, 2019)가 섬 장소성에 기반한 자원 활용 흐름을 보여준다. 방문 경험과 행동 측면에서는 해양레저 스포츠 몰입 연구(카리모프 수하일라·정병웅, 2023)와 일본인 여성 관광객의 제주 방문 특성 분석(정승훈 외, 2019)이 장소성 지각과 행동 반응의 관계를 구체화한다. 한편 여객선 운임지원제도 개선 연구(장운재·노창균, 2016)가 국가·지방정부-섬 지역 이슈를 연결하며 토픽 2의 정책적 논의를 뒷받침한다. 토픽 3은 ‘품질’, ‘지표’, ‘지각’, ‘가격’, ‘음료’, ‘지식’ 등을 중심으로, 관광 경험의 평가 요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흐름을 반영한다. 강중헌·고범석(2007)은 남해안 블루 투어리즘 맥락에서 서비스 품질과 가격 등 요인을 검토하였으며, ‘지표’ 요소는 서용건 외(2010)의 섬 관광 개발 지표 논의가 채동렬(2014)의 해양보호구역 제도 연구가 이를 지지한다. 또한 이경여·최문용(2021)

과 안태기(2017)는 사전 지식과 지각·관심 요인이 섬 관광 선택과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토픽 3의 ‘지식’ 요소를 뒷받침한다.

토픽 4는 자연·생태 자원과 레저·체험·학습 활동, 환경적 제약이 결합된 연구 군집으로 해석된다(예: 레저스포츠, 지식, 다양성, 제약, 생물, 추세, 학문). 이호상 외(2020)는 풍도의 생물 다양성과 생태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생물’·‘다양성’ 요소를 구체화하고, 윤마병(2019)은 가상현실 야외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학습’ 요소와 연결한다. 또한 김찬희·김준호(2025)는 울릉도 방문객의 선택 속성, 만족과 제약요인이 섬 관광 평가와 연계됨을 구체화한다.

토픽 5는 축제·레저 활동과 생활·숙박 및 시설 확충이 주민 태도와 관광 인지도와 연계되어 논의되는 연구 흐름으로 요약된다(예: 축제, 골프장, 생활, 숙박, 시설물, 태도, 인지도). 전남 서남해안의 생태·문화·축제를 분석한 이진형·강신겸(2014)과 동백 축제 및 탐방로 활용을 제시한 한형호(2015)는 축제·레저 활용 측면을, 굴업도 오션파크 개발시설 조성과 주민 태도를 분석한 정진원·김천권(2013)은 생활·시설 기반 논의를 제시한다. 아울러 주민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 최영수·최영환(2021)과 섬 지역 생활환경 변화를 다룬 박성현·황두현(2021)은 해당 주제의 논의를 확장한다.

토픽 6은 치유·해양 관광 자원과 국가 정책, 브랜드 전략,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패키지 기획이 결합된 연구 흐름으로 해석된다(예: 치유, 국가, 바다, 육지, 숙박, 브랜드, 패키지, 유치). 황가영 외(2020)는 섬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 가능성을 제시해 ‘치유 자원’ 측면을 뒷받침하고, 조은요·전형연(2024)은 신안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브랜드·패키지·유치’ 요소를 구체화한다. 또한 이용규(2019)와 김농오·이용규(2020)는 해양·도서 정책의 변화와 과제를 분석하여 섬 관광의 국가 정책적 흐름을 반영한다.

토픽 7은 섬 인프라와 공간 시스템, 교류 네트워크, 입지 전략을 중심으로 관광 개발과 지역 구조를 논의하는 연구 군집으로 해석된다(예: 도시, 회복, 교류, 시스템, 인프라, 입지, 네트워크, 모델, 제도). 이는 도심항공교통 기반 접근성을 분석한 이용규(2023), 섬 지역 호텔 입지 변화를 검토한 남윤섭(2020), 제주·하이난 국제교류를 통해 섬 지역 간 교류 집단과 네트워크 형성을 제시한 황관·한상연(2015)과 연결된다. 아울러 강신겸·이진형(2018)은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을 중심으로 여촌 네트워크, 가치창출, 운영모델을 포함한 정책적 맥락을 제시하였다.

토픽 8은 관광자의 내적 평가 요인(위험·제약·동기·지각·태도)과 섬 지역의 환경적 특성(어촌·무인도와 결합된 연구들이 형성한 주제 영역으로 해석된다. 부정적 언론보도와 위험지각이 섬 이미지와 참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천덕희·김상훈, 2024, 2025)와 완도 섬을 대상으로 위험지각의 조절효과를 규명한 연구(김영희, 2022)는 위험·지각 요인을 뒷받침한다. 또한 수산물 식자원을 활용한 음식관광 동기와 지역 활성화를 분석한 연구(김성근·김보성, 2021)는 동기 요인, 섬 관광에서 제약·동기·행동 관계를 검토한 연구(황티추엔·김월호, 2023)가 이를 뒷받침한다. 즉, 토픽 8은 관광자의 위험 인식·제약·동기와 섬 지역 특성이 결합된 연구 흐름을 나타낸다.

〈표 9〉 토픽별 감마(Gamma) 값 상위 주요 논문

토픽·감마	대표 논문의 연구 주제	저자
Topic 1	여객 이동·접근성·만족도 중심 섬 방문 경험 연구 (만족, 인천, 터미널, 세계, 유산, 여객, 남이섬, 지방, 안내, 연안)	
0.991	연안 여객 터미널 경영 효율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이충우 외(2020)
0.986	인천 도서의 선택 속성과 만족도, 재방문 및 추천의도 영향관계	한상겸(2015)
0.985	인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문화관광 정책 방향 연구	이용규(2022)
0.983	창조 도시의 지역적 변용: 제주 세계 평화의 섬과 평화 산업 사례	권상철(2013)
0.979	MICE 산업을 활용한 인천지역 섬 관광 콘텐츠 홍보방안	이용규·김용환(2020)
Topic 2	섬 장소적 특성과 지역 이슈 (아시아, 중앙정부, 보길도, 장소, 만족, 국가, 바다, 소멸, 운임)	
0.987	아시아 유학생의 섬 레저스포츠와 지역 이미지·행동의도 영향	카리모프·정병웅(2023)
0.986	제주 독립기념관 설립과 항일운동 장소성과 보존 가치 증진	이용규(2023)
0.978	보길도의 장소성과 바다 경관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관광 활성화	한형호(2012)
0.975	일본인 여성 제주도 방문객의 관광 행동 특성과 만족 요인 분석	정승훈 외(2019)
0.974	지역 소멸 위협에 대응하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제도 개선	장운재·노창균(2016)
0.968	돌섬의 해양자원 관광콘텐츠·체험 요소 개발 및 방문객 만족도	고계성(2019)
Topic 3	서비스 품질·가격·지표·지각 요인 연구 (품질, 지표, 지각, 가격, 커피, 지식, 지질, 음료, 부문, 동기)	
0.987	서비스 품질·식음료 가격·레스토랑 이미지·가치 영향 관계	강종현·고법석(2007)
0.972	해양보호구역제도와 지표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평가	채동렬 (2014)
0.971	백령도 지식-선택 속성-지각 가치의 조절효과 기반 행동의도	이경여·최문용(2021)
0.970	섬 관광동기와 선택속성 영향요인 분석 (지식 및 관심 관여도 효과)	안태기 (2017)
0.967	섬 관광지 경쟁력 지표 개발 (서비스 수준 포함)	서용건 외 (2010)
Topic 4	생태-레저-지식-교육 관련 연구 (울릉도, 레저스포츠, 지식, 다양성, 제약, 생물, 추세, 학문, 국민)	
0.989	풍도 생물 다양성과 생태관광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호상 외 5명 (2020)
0.987	섬 관련 연구 대상·특성의 섬 연구 추세 분석	이동호(2022)
0.982	섬 관련 학술지 연구 특성과 학문 분야 구조 및 SNA 분석	이동호(2018)
0.981	맨샹지 섬의 3D 야외학습과 과학 지식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윤마병(2019)
0.973	울릉도 섬 관광 선택속성과 만족도 및 관광 제약요인 조절효과	김찬희·김준호(2025)
Topic 5	축제 및 생활·관광시설 관련 연구 (축제, 태도, 골프장, 생활, 숙박, 인지도, 시설, 인문학, 시각, 매체)	
0.988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 (골프장) 및 갈등관리 및 지속가능성	정진원·김천권(2013)
0.984	전남 섬 사회 변화와 정주 인구 및 생활환경에 대한 정책 제언	박성현·황두현(2021)
0.983	전남 서남해안 냉·온대 섬 관광의 역사와 생태·문화·축제 활용	이진형·강신결(2014)
0.982	보길도 섬 해양 생태관광자원 활용과 동백축제와 치유 탐방로	한형호(2015)
0.978	신안군 섬 관광 인식 요인이 지역 주민 만족도 및 태도 영향 관계	최영수·최영환(2021)
Topic 6	치유 자원·해양 정책·숙박 관련 연구 (치유, 국가, 육지, 바다, 숙박, 국토, 브랜드, 역대, 패키지, 유치)	
0.987	자연·인문·치유 자원을 활용한 풍도 발전 연구	황가영 외(2020)
0.986	문제인 정부의 해양 도서 정책과 국토 인식 기반 해양관광 과제	이용규(2019)
0.986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 변화와 관광객 유치 전략 분석	이용규 외(2019)
0.985	차기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 개선 방향과 해양 강국 전략	김농오·이용규(2020)
0.983	섬 홍보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전략 (신안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조은요·전형연(2024)

Topic 7	도시형 시스템·인프라·모델 및 교류 네트워크 (도시, 교류, 시스템, 인프라, 입지, 네트워크, 창출, 모델, 제도)	
0.986	섬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시스템 및 인프라, 제도 개선	이웅규(2023)
0.982	제주도 섬 지역 관광 도시의 시기별 호텔 입지의 공간변화	남윤섭(2020)
0.982	지방정부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제주도와 중국 하이난성의 사례)	황관·한상연(2015)
0.977	한국도서학회의 사회적 책임과 도서 관리 제도 측면에서의 역할	이웅규 외(2019)
0.976	찾아가고 싶은 섬 관광정책·네트워크·가치창출·운영모델 과제	강신겸·이진형(2018)
Topic 8	위험·제약·동기 및 어촌·수산물·무인도 연구 (위험, 동기, 지각, 제약, 태도, 집단, 인구, 어촌, 무인도)	
0.988	수산물 식자원을 활용한 섬 음식 관광 동기와 지역 관광 활성화	김성근·김보성(2021)
0.981	부정적 언론보도와 섬 관광 위험지각·이미지·참가의도 영향	천덕희·김상훈(2025)
0.980	보령 섬의 관광 위험지각, 관광객 태도 및 참가의도 영향관계	천덕희·김상훈(2024)
0.976	완도 섬 관광지 매력성, 가치의 차이 및 위험지각의 조절효과	김영희 (2022)
0.979	섬 관광 선택 속성의 제약요인·행동의도 영향 (베트남 관광객)	황티추옌·김월호(2023)

주 : Gamma=문서의 토픽 포함 확률

V. 결론과 시사점

1. 토론과 결론

본 연구는 2001~2025년 동안 축적된 국내 섬 관광 연구의 흐름을 검토하여 해당 분야의 주제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도별 발행 추이와 학술지 분포 분석, TF-IDF 분석, 그리고 토픽 모델링 결과 중 토픽별 감마(Gamma) 값이 높은 논문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국내 섬 관광 연구의 각 토픽이 반영하는 연구 흐름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섬 관광 연구의 누적적 발전을 조망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데 기초적 근거를 제공한다.

단어 및 TF-IDF 분석 결과, 섬 관광 연구에서는 생태 기반 요소(해양·자연·환경), 관광지 공급 요인(개발·정책·자원·전략·활성화·콘텐츠), 관광 수요·경험 요인(관광객·관광지·방문·만족·속성), 지역사회 요인(주민·문화·가치)이 핵심 어휘로 도출되었다. 이는 섬 관광 연구가 자원 특성, 관광지 공급 체계, 관광객 경험, 지역사회 맥락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정책’, ‘개발’, ‘주민’의 높은 중요도는 섬 관광이 지역 개발정책과 사회적 조건 속에서 논의되는 연구 분야임을 시사한다. 전처리 과정에서 검색어 및 일반 용어를 제거함에 따라, 기능적 단어(도서, 관광, 분석, 조사, 요인 등)는 제외되었고, 대신 ‘만족도’, ‘속성’, ‘행동’ 등 관광 심리·행동 관련 어휘가 TF-IDF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또한 학위논문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한 이진의(2025) 연구에서는 지역·행정·도시적 특성 어휘가 두드러진 반면, 본 연구는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관광 경험과 행위 요인이 보다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국내 섬 관광 연구는 이동·접근성 기반 관광 만족 형성(토픽 1), 장소성과 지역 이슈(토픽 2), 관광객 경험의 품질과 행동 요인(토픽 3)이 각각 독립적인 연구 흐름으로 형성되었으며, 자연 자원과 체험 활동은 생태·레저 중심 논의(토픽 4)로 집약되었다. 축제·생활 시설·인지도 연구(토픽 5)는 주민 인식과 태도를 결합한 지역사회 연구로 확장되었고, 치유 자원과 정책·브랜딩 접근(토픽 6) 역시 주요 연구 축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인프라와 교류 네트워크(토픽 7)는 공간·입지 전략과 연계되었으며, 위험·제약·동기 등 관광객의 내적 요인(토픽 8)은 어촌·무인도 등 섬의 환경적 특성과 결합되어 관광지 선택 행동을 설명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8개 토픽은 비교적 균형적인 비중을 보이며, 섬 관광 연구가 자원·생태, 정책·공간 구조, 관광 경험과 행동, 지역사회, 접근성 및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다층적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한편 ‘품질·가격’(토픽 3)과 ‘위험·제약’(토픽 8)은 관광 일반 연구에서도 다루어지는 주제이나, 섬 관광 맥락에서는 접근성 제약, 공급 구조의 한계, 자연·기상 조건과 결합되며 차별화된 의미를 지닌다. 섬 지역에서는 교통·물류 여건의 제약으로 관광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인식이 육지 관광지와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고, 위험 인식 역시 기후 변화, 해상 이동의 불확실성, 응급 대응의 한계와 연계되어 관광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토픽들은 관광 일반 연구의 단순한 연장선이 아니라, 섬이라는 공간적 특수성 속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섬 관광 연구는 다음과 같은 확장이 요구된다. 첫째, 정책·공간·관광객 행동 간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틀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접근성 개선, 치유·브랜딩 정책, 축제 및 생활 기반 시설 조성 등 섬 관광 정책의 효과성과 실행 맥락을 검증하는 실증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위험·제약·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축적을 통해 기후 변화, 자연재해, 교통 제약, 인구 감소 등 섬 지역의 문제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섬 관광 연구로의 심화가 필요하다.

해외 섬 관광 연구에서는 소규모성, 환경·재난 취약성, 이해관계자 간 관심 차이 등 섬의 구조적 조건과 지역사회 특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Kelman, 2021; Parra-López & Martínez-González, 2018; Sharpley, 2012).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토픽은 이러한 국제 연구 흐름과 일정 부분 일치하나, 최근 해외 연구가 관계적 관점(relational islandness)과 회복탄력성 논의로 확장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McLeod, Dodds, & Butler, 2021), 향후 국내 섬 관광 연구에서도 구조적·정책적 접근의 강화가 요구된다.

2. 학술적·실무적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국내 섬 관광 연구 229편을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 동향과 지식구조를 규명하였다. 특히 토픽 모델링(LDA)과 감마(Gamma) 값 상위 논문 검토를 결합함으로써, 네트워크 기반 하위 집단 분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주제 간 비중과

확률적 경향성을 제시하였다. LDA는 문헌에 내재된 잠재 주제의 확률 분포를 추정하여 문서별 주제 구성 비율을 분석할 수 있으며, 감마 값은 문서의 주제 소속 확률에 근거한 토픽별 대표 논문 선정과 해석의 객관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접근은 국내 섬 관광 연구의 주제 전개 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하며, 향후 연구 및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 구조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실무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표 10 참조). 우선, 생태·자원 기반 주제가 높은 비중을 보인다는 점은 섬 관광의 자연·환경적 특성과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생태 보전과 관광 개발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정책과 전략 수립 및 향후 연구에서 해양 쓰레기, 기후변화, 해양 환경 변화 요인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공간 구조 관련 주제는 섬 관광 개발이 지역 행정, 인프라, 접근성 등 공간적 제약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향후 정책 설계에서 교통 개선, 기반시설 확충, 안전 관리가 핵심 고려 요소임을 시사한다. 주민 관련 논의는 섬 관광이 지역 공동체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관광 수용성, 문화 보전, 주민 참여가 정책적으로 지역사회 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관광객 경험과 심리 연구는 섬 관광이 체험 중심 방문 형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레저·축제 연계 등 지역 체험 콘텐츠를 고려한 경험 기반 서비스 기획이 섬 관광상품 개발에 참고될 수 있다. 또한 가격·위험·접근성·동기 요인을 다룬 연구는 섬 관광의 특수성으로 인해 안전 문제와 이동 제약이 관광객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위험 인식 완화 전략과 지역 특성에 따른 접근성 제약을 고려한 상품 기획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Table 10〉 연구 동향 토픽별 실무·정책적 시사점

주제명	실무·정책적 시사점
생태·자원 기반 관리(섬 관광의 높은 자연·해양 환경 의존성)	생태 보전·관광 개발 균형 고려, 기후변화·환경규제 대응, 자연자원 지속가능성 관리체계 구축 필요
정책·공간 구조 및 접근성 개선(정책·행정·인프라·교통이 관광 활성화의 핵심 요인)	UAM·항만·공항 등 접근성 인프라 확충, 안전관리·재난 대응 강화, 공간 제약 완화 중심의 정책 재설계 필요
경험 기반 관광 및 콘텐츠 개발(섬 관광의 경험 중심 전환)	레저·축제 기반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 심리·행동을 반영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품질 강화
지역사회·주민 참여 및 수용성 강화(주민 인식·태도가 관광 성과에 결정적 영향)	주민 참여형 개발 모델 도입, 지역문화 보호, 공동체 기반 운영체계 구축, 정책 평가 기준에 주민 수용성 반영 필요
위험·접근성·동기 요인 대응(위험 인식·접근성 제약이 선택 행동에 영향)	안전 인프라 확충, 위험 완화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무인도·어촌 특성을 반영한 접근성 개선형 관광상품 개발
치유·브랜딩 전략 강화	지역 치유 자원 기반 웰니스 관광 개발, 지역 브랜드·홍보 전략 강화, 치유·해양·문화 자원 연계형 정책·상품 설계
인프라·교류·공간 전략 연계(섬의 공간 구조·도시성·교류 네트워크 영향)	섬·육지 간 교류 네트워크 강화, 회복·입지 기반 공간 전략 마련, 지역 간 연계형 관광권 구축 필요

3. 한계점과 향후 연구 제언

본 연구는 섬 관광 분야에 축적된 주요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나, 섬별로 자원, 역사·문화·생활양식, 정체성이 상이하어 연구 경향 분석만으로 섬 관광 전반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480개 유인섬 간 지역적 특성 차이, 연구 편중, 사회·문화·제도적 맥락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더불어 메타연구의 특성상 개별 현장 자료에 기반한 정책 및 산업 운영 맥락을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어, 본 연구의 정책적·실무적 함의는 기존 연구 축적을 해석한 간접적 시사점에 해당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도출된 주요 토픽과 연구 흐름을 토대로 정책 변화, 지역사회 환경, 산업 구조 등 맥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섬 관광 정책 실무자 인터뷰와 관련 정책 문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문헌 수집은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섬·도서’ 및 ‘관광·여행’ 관련 용어가 제목·초록·키워드에 포함된 연구를 자동 추출하는 방식에 기반하였다. 이로 인해 섬 관광과 관련된 논의를 포함하더라도 해당 용어가 메타데이터에 명시되지 않은 문헌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제주 관광’, ‘도서 개발’, ‘섬 방문객’, ‘도서 지역 외지인 방문’, ‘해양 국립공원 여가’ 등 섬 관광과 연관된 주제를 다루었더라도, 제목·초록·키워드에서 섬 관광 또는 도서 관광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연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검색어 기반 수집 방식의 제약은 연구 범위의 포괄성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섬 관광 연구가 축적되어 온 개념적 범주와 연구 영역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토대로, 검색어 체계와 문헌 수집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장·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LDA로 도출된 토픽은 문헌 집합에서 반복되는 단어 분포의 확률적 패턴에 기반하므로, 인과 구조나 고정된 의미 체계로 해석하기보다는 주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LDA가 공통적인 주제 패턴을 제시할 뿐, 개별 연구가 동일한 이론적·인과적 구조를 공유함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학술문헌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해외 섬 관광 연구와의 비교·통합 분석을 통해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국제적 논의와의 접점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섬 관광 연구의 향후 발전 방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신겸, 2012, “커뮤니티 중심의 섬 관광 개발”, 『경남발전』, (121), 경남연구원: 24-34.
2. 강신겸·이진형, 2018, “지역사회기반 섬 관광정책의 성과와 과제: 행정안전부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을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14(1), 동북아관광학회: 39-56.

3. 강종현·고범석, 2007, “레스토랑 이미지, 식음료 가격, 가치와 서비스 품질과의 관계”,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17(2), 동아시아식생활학회: 266-273.
4. 고계성, 2019, “해양자원 돌섬 잠재력 분석과 관광콘텐츠 탐색 연구”, 『해양비즈니스』, 43,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1-21.
5. 권상철, 2013, “창조도시의 지역적 변용: 제주 세계 평화의 섬과 평화 산업 사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2), 한국도시지리학회: 17-29.
6. 김농오·이용규, 2020,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차기 정부의 해양도서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한국도서연구』, 32(2), 한국도서(섬)학회: 1-30.
7. 김성근·김보성, 2021, “수산물 식재료를 활용한 섬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연구』, 33(1), 한국도서(섬)학회: 59-78.
8. 김영희, 2022, “완도섬 관광지 매력성과 지각된 가치의 차이” 『해양관광학연구』, 15(3), 한국해양관광학회: 301-319.
9. 김찬희·김준호, 2025, “울릉도 관광지 선택속성이 만족도,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계약의 조절효과”, 『관광진흥연구』, 13(3), 한국관광진흥학회: 71-91.
10. 김태영, 2012, “경남의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경남발전』, (121), 경남발전연구원: 35-47.
11. 김향자, 2020, “섬 관광정책 진단 및 과제(특별연구 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49>
12. 남윤섭, 2020,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patial Change of Tourism City in Island Area-Analysis of Hotel Location Change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Historical Development”, 『국토지리학회지』, 54(3), 국토지리학회: 271-284.
13. 노광민·박성현, 2022, “섬 인식 개선을 위한 섬 브랜드 정립방향에 관한 연구: MZ 세대 대상 2020년과 2021년 가고 싶은 섬 소셜 미디어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34(1), 한국도서(섬)학회: 31-50.
14. 문화체육관광부, 2023, 4월16일, 『오고 싶은 대한민국,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culture.go.kr/tour/majorTourPolicy.do?pageSe=0102> (검색일: 2025.12.04.)
15. 박성현·황두현, 2021, “변화하는 섬 사회의 과제와 정책방향: 전라남도 섬 발전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33(4), 한국도서(섬)학회: 1-19.
16. 서용건·고광희·김민철, 2010, “섬 관광목적지 경쟁력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2(1), 한국관광레저학회: 167-187.
17. 섬 발전 촉진법, 2025, 『법률 제200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58727> (검색일: 2025.12.04.)
18. 송재호·김향자, 2018, “섬 관광개발의 측정적도에 관한 연구: 제주도 4개 섬을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42(10), 한국관광학회: 215-236.
19. 송재호·이성은, 2005, “섬 관광지 관리 이론모델의 개발과 적용: 이론화 가능성과 실천적 유용성 검증”, 『관광레저연구』, 17(3), 한국관광레저학회: 299-319.

섬 관광에 대한 국내 학술 연구(2001 - 2025)의 주제 탐색: 토픽 모델링과 내용분석을 통한 연구 동향과 정책적 함의 93

20. 심진범·김지선, 2017, “인천시 섬 관광 활성화 여건 진단 지표 개발”, 『DI 도시연구』, (12), 인천연구원: 141-172.
21. 안태기, 2017, “섬 관광객의 관광동기가 섬관광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관여도를 조절효과로”, 『관광경영연구』, 21(6), 관광경영학회: 29-47.
22. 오상훈·고계성, 2006, “섬 관광목적지 매력성 비교 연구: 제주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0(2), 한국관광학회: 201-216.
23. 윤마병, 2019, “3D 파노라마 가상현실 만들기를 통한 학생리 맨삽지 야외학습장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장과학교육』, 13(3),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339-347.
24. 이경여·최문용, 2021, “중국인의 백령도 관광 선택 속성과 행동의도에서 사전 지식의 효과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33(2),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165-185.
25. 이동호, 2018, “한국도서연구 학술지의 연구특성에 대한 사회네트워크분석 연구”, 『한국도서연구』, 30(1), 한국도서(섬)학회: 63-84.
26. 이동호, 2022, “섬/도서 관련 연구의 주요 대상과 특성에 대한 분석: KCI 등재지(2012년~2021년)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34(2), 한국도서(섬)학회: 1-18.
27. 이웅규, 2019, “해양시대를 대비한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연구”, 『한국도서연구』, 31(1), 한국도서(섬)학회: 15-36.
28. 이웅규, 2022, “인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문화관광정책 방향 연구”, 『한국도서연구』, 34(1), 한국도서(섬)학회: 51-71.
29. 이웅규, 2023, “보훈 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주 섬’ 독립기념관 분원 설립 연구”, 『한국보훈논총』, 22(1), 한국보훈학회: 81-100.
30. 이웅규, 2023, “섬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심항공교통(UAM) 활용방안 연구”, 『한국도서연구』, 35(1), 한국도서(섬)학회: 1-18.
31. 이웅규·김농오·박수옥, 2019,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분석에 따른 시사점 연구”, 『한국도서연구』, 31(1), 한국도서(섬)학회: 37-64.
32. 이웅규·김용완, 2020, “MICE 산업을 활용한 인천지역 섬 관광콘텐츠 홍보방안”, 『한국도서연구』, 32(2), 한국도서(섬)학회: 31-48.
33. 이웅규·이동신·김농오·김용완, 2019, “한국도서(섬)학회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 분석을 통한 발전 방향 연구”, 『한국도서연구』, 31(3), 한국도서(섬)학회: 147-173.
34. 이진의, 2025,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국내 섬 관광 연구동향(2001~2024) 분석”, 『해양관광학연구』, 18(3), 한국해양관광학회: 9-27.
35. 이진의·강신겸, 2013, “IPA 기법을 활용한 섬 생태관광지 매력요인 분석: 여수 금오도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25(2), 한국도서(섬)학회: 63-82.
36. 이진형·강신겸, 2014, “전남 서남해안의 섬관광: 성찰과 제안”, 『한국도서연구』, 26(1), 한국도서(섬)학회: 47-68.
37. 이충우·배후석·신용준, 2020, “연안여객터미널 경영 효율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경제학

- 회지』, 36(3), 한국항만경제학회: 1-19.
38. 이태겸·박성현, 2023, “섬 지역 위케이션 도입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62,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379-414.
39. 이호상·최병기·정수영·현창석·최수임·강학모, 2020, “도서지역 생태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경기도 안산시 풍도를 대상으로”, 『한국도서연구』, 32(4), 한국도서(섬)학회: 147-164.
40. 장운재·노창균, 2016,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30(2), 한국관광연구학회: 181-192.
41. 정소연, 202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의 미래 연구주제 발굴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34(1),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171-194.
42. 정승훈·양성수·고미영, 2019, “제주방문 일본인 여성관광객의 관광행동 분석”, 『일본근대학연구』, 65, 한국일본근대학회: 259-280.
43. 정진원·김천권, 2013, “굴업도Ocean Park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인천광역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도서연구』, 25(1), 한국도서(섬)학회: 1-20.
44. 조은요·전형연, 2024, “섬지역의 홍보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신안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여행지 사진의 시각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87, 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313-330.
45. 주하정·이슬기·이재현·정철, 2024, “온라인 리뷰분석을 통한 섬 관광 활성화 연구: 백령도·대청도·연평도를 중심으로”, 『우리춤과 과학기술』, 20(2),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67-95.
46. 채동렬, 2014,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제도 적용 방안”, 『한국도서연구』, 26(2), 한국도서(섬)학회: 81-99.
47. 천덕희·김상훈, 2024, “섬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이 관광객의 태도 및 참가의도에 미치는 영향: 보령시5대 섬을 중심으로”, 『융합관광콘텐츠연구』, 10(3), 융합관광콘텐츠학회: 171-184.
48. 천덕희·김상훈, 2025, “섬 관광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섬 관광 위험지각과 목적지 이미지 및 참가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리조트연구』, 24(3), 한국호텔리조트학회: 137-156.
49. 최영수·최영환, 2021, “섬관광 인식요인이 지역주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신안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양관광학연구』, 14(3), 한국해양관광학회: 283-297.
50. 카리모프 수하일리·정병웅, 2023, “도서 해양레저스포츠 몰입이 관광지 이미지와 관광객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아시아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35(2), 한국도서(섬)학회: 35-55.
51. 한상겸, 2015, “인천광역시 도서의 선택속성이 만족도, 재방문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신도·시도·모도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27(2), 한국도서(섬)학회: 51-68.
52. 한형호, 2012, “보길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제안: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한국도서연구』, 24(2), 한국도서(섬)학회: 67-90.
53. 한형호, 2015, “보길도 해양생태관광의 가치성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서연구』, 27(1), 한국도서(섬)학회: 83-103.
54. 해양레저관광진흥법, 2025, 『법률 제201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해양레>

[저관광진흥법\(20178,20240130\)](#) (검색일: 2025.12.04.)

55. 행정안전부, 2019, 3월25일, 『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위해 1,519억원 투자: 제4차 도서종합 개발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검색일: 2025.12.04.)
56. 허중욱·최영순, 2023, “우리나라 도서(섬)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 대응전략”, 『한국도서연구』, 35(4), 한국도서(섬)학회: 161-181.
57. 황가영·김현희·Mizuno Kazuharu·김다빈·공우석, 2020, “자연 및 인문 자원을 활용한 풍도발전 연구”, 『한국도서연구』, 32(2), 한국도서(섬)학회: 49-67.
58. 황티추옌·김월호, 2023, “도서(섬) 관광지 선택속성이 관광 제약요인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베트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도서연구』, 35(3), 한국도서(섬)학회: 41-60.
59. 황관·한상연, 2015,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제주도와 중국 하이난성의 사례”, 『도시행정학보』, 28(3), 한국도시행정학회: 53-74.
60. Blei, David M., Andrew Y. Ng, & Michael I. Jordan,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January): 993-1022.
61. Blei, Davi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62. Breiger, Ronald L., Scott A. Boorman, & Paul Arabie, 1975, “An Algorithm for Clustering Relational Data with Applications to Social Network Analysis and Comparison with Multidimensional Scaling”, *Journal of Mathematical Psychology*, 12(3): 328-383.
63. Kelman, Ilan, 2021, “Critiques of island sustainability in tourism”, *Tourism Geographies*, 23(3): 397-414.
64. McLeod, Margaret, Rachel Dodds, & Richard Butler, 2021,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on island tourism resilience”, *Tourism Geographies*, 23(3): 361-370.
65. Parra-López, Eduardo, & José Alberto Martínez-González, 2018, “Tourism research on island destinations: a review”, *Tourism Review*, 73(2): 133-155.
66. Sharpley, Richard, 2012, “Island tourism or tourism on island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37(2): 167-172.

(논문접수일: 2025. 12. 05 / 수정일: 1차-2025. 12. 19 / 영문초록감수일: 2025. 12. 19 / 게재확정일: 2025.12.26)